

너도나도 가맹택시 도전장... 들썩이는 모빌리티 시장

쏘카, 이달 말 '타다 라이트' 출시
SKT, 우버와 손잡고 본격 진출
업계 1위 '카카오T' 추격전 시작
데이터 활용 이점에 시장 확장

가맹택시 사업으로 모빌리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쏘카와 SK텔레콤까지 시장 잠전을 예고하면서 가맹택시 1만대를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가 선도하는 가맹택시 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이달 말 가맹택시 호출서비스 '타다라이트'를 출시한다. VCNC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현재 드라이버를 모집 중이며, 서울과 부산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점차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타다 앱을 통해 기존 고



카카오 T 블루 차량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급택시 기반의 '타다 프리미엄'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타다는 4월 기준 172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 타다 라이트를 활발하게 서비스할 경우 가맹 택시 시장에서 단숨에 경쟁 상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VCNC는 올해 3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 기반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종료하며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쏘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동 감소와 타다 베이직 종료에도 불구하고 최근 6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국내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에 오르며 모빌리티 사업자로의 위상을 증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 T맵 플랫폼과 T맵 택시 사업 등을 추진해온 모빌리티 사업단을 분할해 연내 우버와 합작법인(JV)인 'T맵모빌리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 T맵모빌리티 자회사로 'T맵택시-우버택시 합

작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차량 공유 기업 우버는 T맵모빌리티에 5000만 달러(약 575억원)를 투자하고, T맵택시-우버택시 합작사에 1000만 달러(약 1150억원)를 투자한다. 택시 호출 합작사에 대해선 우버 51%, T맵모빌리티 49%의 지분율을 갖는다.

업계는 1200만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보유한 SKT의 'T맵'을 바탕으로 양사가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이동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도·차량 통행분석 기술과 글로벌 1위 승차 공유 회사 우버의 노하우가 만나 선보일 호출 사업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버는 일반택시 호출 서비스 '우버택시'와 고급택시 서비스 '우버블랙'을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양사는 택시 호출 사업 외에도 양사는 렌터카, 차량공유, 전동킥보드, 자전거, 대리운전, 주차 등을 모두 묶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올인

원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독형 모델로 내놓을 계획이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가맹택시 선두주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카카오 T 블루'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각각 '1만대가 넘는 규모로 가맹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택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사업의 지속성이 낮은 카풀 등 새로운 사업보다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위험 부담이 적어 모빌리티 업계가 가맹택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택시는 택시 면허를 살 필요 없이 기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일정한 가맹비와 교육비, 풀당 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영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 시그니처, 伊명품가구와 '프리미엄 협업'

몰테니앤씨와 마케팅 업무협약
프로모션·제품 등 전방위 협력

LG 시그니처가 이탈리아 명품 가구를 만난다.

LG전자는 16일 몰테니앤씨 S.P.A와 온라인을 통해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몰테니앤씨 S.P.A는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몰테니앤씨와 주방용 가구 브랜드 다다를 운영하는 회사다. 이탈리아와 미국 등 23개국에 53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3년간 3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마케팅과 전시, 프로모션뿐 아니라 제품 개발까지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LG전자 글로벌마케팅센터장 김진홍 전무(왼쪽)와 몰테니그룹 CMO 줄리아 몰테니가 비대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앞서 LG전자는 최근 이탈리아 몰테니뮤지엄에 시그니처 올레드 8K를 전시하며 프리미엄 TV와 명품 가구 조화를 선보인 바 있다. 다음달 프랑스 파리 에 문을 여는 몰테니 플래그십 스토어에도 시그니처 올레드 8K를 설치할 예

정이다. 몰테니그룹 CMO 줄리아 몰테니는 "몰테니앤씨의 프리미엄 가구와 LG 시그니처가 조화를 이뤄 아름다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모두 갖춘 공간에 대한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에쓰오일 스타트업 투자로 탄소배출권 확보

정수설비 업체 글로리엔텍 투자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다.

에쓰오일이 개발도상국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

에쓰오일은 개발도상국에 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체인 '글로리엔텍'에 투자해,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연간 1만3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향후에도 에쓰오일은 글로리엔텍과 협력해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선순환 구조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CDM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에쓰오일의 이번 투자는 중소스타트업 기업에 후원해,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를 회사의 당연한 과제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에쓰오일은 전사 탄소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개선 아이템을 발굴해 실제 공정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기존 울산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약 6%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18년에는 울산공장 보일러에 사용되는 연료를 벵커-C에서 LNG로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LG화학, 100%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

가공 후에도 투명... 세계 최초

LG화학이 세계 최초로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계적 물성 구현이 가능한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LG화학은 19일 독자기술 및 제조공법을 통해 기존 생분해성 소재의 유연성(신율)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소재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개발한 신소재는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 및 폐글리세롤을 활용한 바이오 함량 100%의 생분해성 소재다. 단일 소재로는 PP(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계적 물성과 투명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세계 유일한 소재다.

기존 생분해성 소재의 경우 물성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해 다른 플라스틱 소재나 첨가제를 섞어야 해, 공급업체별로 물성과 가격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LG

화학이 개발한 생분해성 신소재는 단일 소재로 고객이 원하는 품질과 용도별 물성을 갖출 수 있다.

특히 핵심 요소인 유연성은 기존 생분해성 제품 대비 최대 20배 이상 개선되면서 가공 후에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 생분해성 소재가 주로 쓰이는 친환경 포장재 업계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생분해성 수지의 경우 혼합 소재의 특성상 불투명한 포장재 제품 등으로 활용돼 왔다. 또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생분해성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닐봉투, 에어캡 완충재, 일회용 컵, 발포 제품 및 마스크 부직포 등의 다양한 분야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이 신소재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분해성 핵심 물질에 대



LG화학 미래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신규 개발한 생분해성 신소재의 물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한 고유의 원천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현재 선제적 출원을 통해 생분해성 중합체, 조성물, 제조방법 등에 대한 총 25건의 특허를 국내외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LG화학 미래기술연구소는 생분해성 핵심 물질의 분자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중합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기존 소재와 차별화된 물성의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SK매직, 자가관리 '직수정수기' 판매 순항

출시 한 달 만에 1만대 판매 돌파

SK매직은 지난 8월 중순 출시한 자가관리형 정수기 '스스로 직수정수기(사진)'가 한 달 만에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9월 한달 간 스스로 직수정수기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판매량이 67% 증가하는 등 '올인원 직수정수기'와 함께 SK매직의 주력 모델로 자리잡았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직수정수기 출시 후 SK매직의 정수기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성과도 얻었다.

또, 지난 6월 조사에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250% 증가했던 '올인원 직수 얼음정수기'도 9월 기준으로 224% 늘어나는 등 정수기 전체 판매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SK매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자가관리형 제품이 변화하는 시장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는 한편, 실내 활동 증가와 홈 카페 트렌드 확산 등도 판매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스스로 직수정수기'는 자동 살균 기능인 '듀얼 안심케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전문적인 방문관리 서비스와 동일한 '직수관 전해수 살균'과 '코크 UV살균' 등이 정수기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